

독서

목차

이유 추리 문제 이론

이유 추리 문제 적용

전개 방식 문제 이론

전개 방식 문제 적용

표 그림 그래프 문제 이론

표 그림 그래프 문제 적용

줄글 보기 문제 이론 4

줄글 보기 문제 적용 21

일치 문제 이론

일치 문제 적용

어휘 문제 이론

어휘 문제 적용

풀이순서 0단계

풀이순서 1단계

풀이순서 2단계

‘글’(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10하원칙 6WH2CR+v(서술어)					
지문 표시 요소 = 중심 내용 파악 요소 = 출제 요소					선택지 오진술 구성 원리 기본 : 단순 불일치
주체	≙ 상황 과 맥락 을 결정 / 조건 기준 관계 는 학술 적 구체 화	Who	누가	주로 주어(A가, A는), A의 ~	주체 바꾸기
대상 (상대)		What	무엇을	주로 목적어(A를), 주어(A란), 부사어(A에 대해), 개념, 상대	대상 바꾸기 (주체와 대상의 방향 바꾸기)
시간		When	언제	배경(변화할 때 주의)	선후 바꾸기
공간		Where	어디서	배경(변화할 때 주의)	공간 바꾸기
원인 (과거)		Why	왜	~이므로, ~때문에	인과 바꾸기
목적 (미래)		Why	왜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자	목적 바꾸기
수단, 방법		How	어떻게	~를 통해, ~함으로써	수단 바꾸기, 목적과 수단 바꾸기
조건		Condition		A의 경우, A라면, A라 하더라도	조건 바꾸기
기준		Criterion		A에 따라	기준 바꾸기
관계		Relation	결론, 결과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유 · 유추 관계 - 상하(포함) 관계 - 양자 관계(A는 B보다 크다) - 삼자 관계(A와 B는 반비례, A와 C는 비례) - 상관 관계 Vs 인과 관계 	관계 바꾸기 - 문장 구조 관계 바꾸기 : 지문이나 보기에서 (A 는) (B와 C를) 선지에서 (A와 B는) (C를) - 비교의 자리 바꾸기 - 선후 관계를 인과 관계로 바꾸기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문제 해결을 위한 10하 원칙(6WH, 2CR)

지문 표시와 연결되는 선택지 구성의 원리

선택지는 지금까지 공부한 지문 표시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만 하고 ‘발문의 유형’에서 문제 풀 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여주겠다.

1. 주체 바꾸기 : 독서뿐 아니라 고전소설 특, 인물 문제로 많이 나온다.
2. 대상 바꾸기 : 유사 개념어가 연달아 나올 때 주의해야 한다.
3. 선후 바꾸기 : 고전소설 특, 사건의 선후 관련 줄거리 문제로 많이 나온다.
4. 공간 바꾸기 : 고전소설, 생명 과학, 기술 특. 어떤 공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출제 요소
5. 인과 바꾸기 : 독서, 문학, 화작, 언매. 전 영역에서 단골 출제.
6. 목적 바꾸기, 수단 바꾸기, 목적과 수단 바꾸기
7. 조건 바꾸기
8. 기준 바꾸기
9. 관계 바꾸기 : 지문에서 비교하지 않았는데 선택지에서 비교하기, 비교의 자리 바꾸기, (지문/보기에서는)선후관계인데 (선택지에서는)인과관계의 오류 등
10. 단순 불일치 : 원리라기보다는 국어 문제의 절반 이상은 이 방식으로 오답을 구성한다. ‘언급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기’ 포함.

‘기준’ 잡고 ‘대응’

이번 문제 유형은 ‘줄글 보기’ 문제인데 ‘기준 잡고 대응’에 관해서 먼저 공부해 보겠다. 사실 수능국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기준 잡고 대응’이다. ‘줄글 보기’ 문제는 보통 지문에서 ‘기준’을 잡고 <보기>에 ‘대응’을 시키는 것이 전형적인 구조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7학년도 6월)

(가)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 실험동물이 ㉡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1. < 보기 >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내가 알고 있는 ㉣ 어떤 개는 ㉤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 비슷하게 생긴 ㉣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 | | | |
|---|---|---|---|
| | ㉠ | ㉡ | ㉢ |
| ① | 가 | 나 | 라 |
| ② | 가 | 다 | 나 |
| ③ | 라 | 가 | 다 |
| ④ | 라 | 나 | 다 |
| ⑤ | 라 | 다 | 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A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B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문단의 ‘두 대상’에 해당하는) (인간과) (㉠ 실험동물이) ㉡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앞 문단에서 언급한 것과의 관련성 속에서 읽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유비 논증

어제 아침 나는 (몇 가지 유사한 점)머리 하나 다리 두 개 날개 두 개를 가진 생명체(A참새)를 만났다.

오늘 아침 나는 (몇 가지 유사한 점)머리 하나 다리 두 개 날개 두 개를 가진 생명체(B닭)를 만났다.

그런데 어제 그 생명체는 날았다.(추가적 특성)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본 그 생명체도 날 것이다.(추론한 결론)

주의할 점은 유비 논증은 언제나 참인 논증은 아니라는 것.

1. < 보기 >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먼저, '기준'을 잡아야 한다. 읽을 때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나는 그 기준을 마지막 괄호 친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대상+서술부로 잡았다. 그렇다면 아래 <보기>에서 축론이 적용되는 대상은 무엇일까? 아래 <보기>에 괄호 친 (㉠ 다른 개를) = (이 개도) = 지문의 (인간) 답이 벌써 나왔네. '인간'에게 적용='이 개'에게도 적용. 이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대응. 2번이네. 그럼 수학처럼 검산을 해보자.

㉠ 비슷하게 생긴은 ㉡ 유사성에 해당하겠다. 적용하려고 하는 ㉢ 반응 결과는 ㉣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 그렇다면 ㉡ 실험동물에 해당하는 것은 당근 ㉦ 어떤 개가 되겠다.

< 보 기 >

내가 알고 있는 ㉦ 어떤 개는 ㉣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 비슷하게 생긴 ㉠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 | | | |
|---|---|---|---|
| | ㉠ | ㉡ | ㉢ |
| ① | 가 | 나 | 라 |
| ② | 가 | 라 | 나 |
| ③ | 라 | 가 | 다 |
| ④ | 라 | 나 | 다 |
| ⑤ | 라 | 다 | 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2학년도 대수능)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2.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직관	표상	사유
감각	심상	논리
외면성	내면성	종합
예술의 객관성(정)	종교의 주관성(반)	철학에서 종합(합)
초보	성장	완숙

2.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사유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사유)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직관에 기획은 없네 X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사유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사유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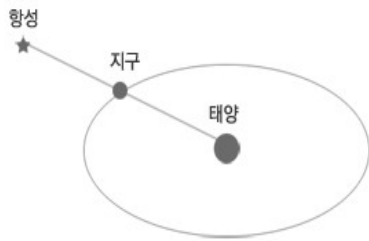
줄글 <보기> 문제가 들어 있는 다음 지문을 풀어보자. 지금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많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했던 레전드 문제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학년도 대수능)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고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A]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고자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다. 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 ③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 ④ 릴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규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2. 윗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는군.
-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겠군.

3.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4.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00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 60초가 걸렸다.

- ㉠ ㉡ ㉢
- ① 항성 항성년 회귀년
 - ② 항성 회귀년 항성년
 - ③ 지구 회귀년 회귀년
 - ④ 지구 항성년 회귀년
 - ⑤ 지구 회귀년 항성년

5. ㉣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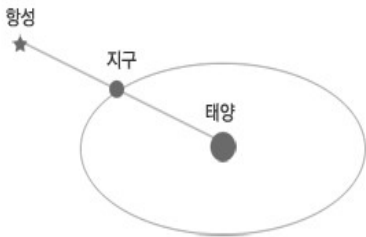
- ①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 ②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해결하자.
- ③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 ④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 ⑤ 지난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

※ 다음 글 처음 부분부터 표시를 하며 읽다가, [A]를 읽고 나서, 바로 4번 문제를 풀어보시오.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어디서**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대상이 되는 개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언제**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에서 ㉢쪽으로 화살표시 해 두기, 그래야 문제 풀 때 선후관계가 헷갈리지 않는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대상이 되는 개념2**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 첫 보름달이 뜬 후 /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그는) **주어, 주체**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고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A]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주어, 주체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고, **어떻게**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고자 **의도**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다. 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무엇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1문단 첫부분에 의해 X)
-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5문단에 의해 X)
- ③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4문단 앞부분, 주체와 목적에 의해 O, '일치하'는 것의 답은 대부분 핵심 내용과 관련된 것이 답. 이 질문은 이 글의 '주제'에 해당)
- ④ 릴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규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5문단에 의해 X)
-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1문단에 의해 X)

'일치 문제' 유형은 별도로 다루겠다.

2. 윗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지문 표시 요소'는 <보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참고해야 할 <보기>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

-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지문: '보름달이 뜬 후' / 보기: '보름달이' ~)
-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당근이지**
-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보기>에서는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문에서는 '보름달'이라는 '달의 모양'을 고려했다. 대상을 바꾸어 오답을 만들어 냈다. '오답을 구성하는 원리'는 뒤에서 '모두' 다룰 것이다. '지문 표시 요소'와 '오답 구성 원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해 두자.)
- ④ 그레고리력의 1년(365일)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354일, 2~3년에 한 번씩 윤달도 있다)과 일치하지 않는군.
-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354+약 30일=약 384일)은 율리우스력의 윤년(366일)보다 길췌군.

3.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과 ㉡의 위치에 주목하면 이 문제는 지문을 다 읽은 후에야 풀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글 전체는 ㉠과 ㉡에 대한 내용일 테니까.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율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여기까지 율리우스력 //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이가 그레고리력 계산법

// 앞부분에 있는 (율리우스력으로) 1700년은 4의 배수이므로 '윤년'이 되고, // 뒷부분인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해 보면 100의 배수이므로 '평년' / 400의 배수는 아니므로 ==> 그대로 '평년'

이것도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계산법에 따른 양자관계(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계산법 공통점과 차이점)에 해당. 갑툭튀 이론이나 기술은 어려워니 항상 '이전 것'의 바탕 위에 '새 것' 추가.

-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5문단 첫 문장에 의해 이)
-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를 읽을 때, '대상'과 '무엇이 무엇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보기>에서 필요로 하는 대상을 지문에서 찾아서 '대응'시키기 위해 '기준'을 먼저 잡는다.

4.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OO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 60초가 걸렸다.

㉠ ㉡ ㉢

- ① 항성 항성년 회귀년
- ② 항성 회귀년 항성년
- ③ 지구 회귀년 회귀년
- ④ 지구 항성년 회귀년
- ⑤ 지구 회귀년 항성년

복수의 대상을 '대응'시킬 때, 그 '기준'은 먼저, 움직이고 있는 ㉠ '철수'. 이에 대응하는 것이 공전하는 '지구'.

이제 '관계' 속에 넣어 보자. [A]에서 밑줄 표시해 두었던 ('회귀년'이) 짧다. (양자 비교-공통점이라는 의미 아님) ㉡ 57초가 여기에 해당한다. 긴 것은 '항성년'이니 ㉢ 60초가 여기에 해당. 답은 5번

5. ㉡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 ②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해결하자.
- ③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 ④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 ⑤ 지난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

'어휘 문제'도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로 나누어서 풀이 방법을 두에 제시하겠다.

여기에서는 간단히 살펴보자. 여기에서의 '으로'는 해당 문장 서술어의 필수부사어사의 '으로'와 쓰임이 같은 것을 묻는, 엄밀히 말하면 문법 문제이다. 필수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삼다' 앞에서 쓰인 '으로'와 쓰임이 같은 것을 찾아야 하므로 선택지의 서술어를 모두 '삼다'로 바꾸어 보자. 3번 '회장으로 삼다'가 가장 비슷한 의미가 된다.

줄글 <보기> 문제(적용하기 문제) 풀이 공식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풀라고 하는 ‘적용하기’ 문제이므로 지문을 다 읽은 후에 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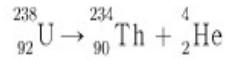
단, ‘사례’ 문제에 한해서는 ‘표그림그래프’나 ‘㉠(과 ㉡)에 대한 설명’ 문제처럼 해당 문단을 읽은 후 바로 풀어도 된다.

핵심 개념간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이나, 한 문단의 중심 내용 또는 전체 글의 주제가 구현된 것이 <보기> 문제이다. 관련 문장, 문단, 전체 주제를 환기한 후 풀면 주로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줄글 <보기>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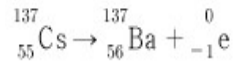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년 10월 시행)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이지만, 원자 번호가 83을 초과하면 양성자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이 커져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원자핵은 자발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여 안정된 다른 종류의 핵으로 변환하려고 한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으며, 이와 같은 방사선을 방출하여 안정된 다른 종류의 원자핵이 되는 현상을 방사성 원소의 붕괴라고 한다.

알파 붕괴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질량수가 큰 불안정한 원자핵들이 질량수가 작은 안정된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때 방출되는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핵인데, 이것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방사성 원소가 알파 붕괴를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각각 두 개씩 줄어들어, 원자 번호는 2만큼 감소하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인 질량수는 4만큼 감소하게 된다. 92개의 양성자와 146개의 중성자를 가진 우라늄 238이 알파 붕괴를 하면 90개의 양성자와 144개의 중성자를 가진 토륨이 되는데, 이를 아래와 같은 핵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베타선을 방출하는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불안정한 원자핵이 중성자의 수를 줄여 보다 안정된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베타 붕괴를 할 때에는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변한 다음, 양성자는 핵에 그대로 남고 전자만 외부로 방출된다. 이 경우 사라지는 중성자 대신 양성자가 하나 생기게 되므로 원자 번호는 하나 증가하지만 질량수는 변화가 없다. 55개의 양성자와 82개의 중성자를 가진 세슘이 베타 붕괴를 하면 56개의 양성자와 81개의 중성자를 가진 바륨이 되며, 그 핵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감마선을 방출하는 감마 붕괴는,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를 통해 새로 생긴 원자핵이 불안정한 들뜬 상태에 있을 때 안정된 상태로 변하기 위하여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감마 붕괴는 원자 번호와 질량수에 변화가 없고,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와 연동하여 발생된다. 즉 알파선과 감마선이 함께 방출되거나 베타선과 감마선이 함께 방출된다.

자연 방사성 원소는 납과 같이 안정된 물질에 이르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정된 원자핵일지라도 입자 가속기에서 나온 고속의 입자를 충돌시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주면 인공적으로 방사선을 방출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공적 방사성 원소는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고 값도 비싸지 않아 과학적인 탐구나 산업, 의료 활동 등에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방사선은 생명체를 통과하면서 전리(電離)현상을 일으켜, 세포의 분열 저해, 돌연 변이, 조직의 파괴 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과 달리 방사성 원소를 많이 취급하는 사람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전리 : 전하를 띠는 양이온 또는 음이온으로 됨.

지문을 다 읽고 난 후, <보기>를 읽고, <보기> 내용과 관련한 문단을 찾는다. 바로 마지막 문단 내용이 연결고리가 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 방사성 원소는) 납과 같이 안정된 물질에 이르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정된 원자핵일지라도 입자 가속기에서 나온 고속의 입자를 충돌시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주면 인공적으로 방사선을 방출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공적 방사성 원소는)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고 값도 비싸지 않아 과학적인 탐구나 산업, 의료 활동 등에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③(방사선은)이 부분에서 주의! 맨 앞에서는 (자연 방사성 원소)이라고 했고, 다음에는 같은 방사성 원소 계열이지만 대조되는 개념인 (인공적 방사성 원소)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둘 중 하나를 가리키지 않고 (방사선)이라고 한 것에는 앞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른 지문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장 전개 논리이다. 꼭 알아둘 것. 대표적으로 2020학년도 9평에서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이다. 점유는 소유권을 공시한다. 공시란?' 이후 문단에서는 간접점유에 의한 소유권 공시 내용이 나온다. 어떤 점유가 됐든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③생명체를 통과하면서 전리(電離)현상을 일으켜, 따라서 모든 방사선은 전리현상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한다. 세포의 분열 저해, 돌연 변이, 조직의 파괴 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과 달리 ⑤(방사성 원소를 많이 취급하는 사람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②(일반인은) 평소 특별히 유의하지 않아도 된다.

< 보 기 >

(퀴리 부인은) 자연 방사성 원소인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이와 같은 방사성 원소를 지속적으로 실험하다가 결국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류는) 방사선의 유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원폭 피해 환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통해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 증가의 구체적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100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을 비롯한 암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과

- ① 퀴리 부인은 방사선의 전리 현상 때문에 병을 얻게 되었군. <보기> 전체 내용과 일치, 끝문단의 (방사선은) 이후와 일치.
- ② (일반인은) 자연 상태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겠어. 문장 논리
- ③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 현상은) 인공적 방사성 원소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군. X
- ④ (퀴리 부인은 자연 방사성 원소를 발견할 때) 고속의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았겠군. 단순한 선후의 문제. 자연방사성 원소를 발견해야 나중에 입자가속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지?
- ⑤ (병원의 방사선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거야. 대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8년 대수능)

정부가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자율은 높은 게 좋다. 그렇다면 할인율은 낮은 게 좋은 거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 사회적 할인율과 평가는 반비례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보기>에서 논의 대상은 '놀이동산 건설'이다. 이것을 둘러싸고 아해 당사자들이 할인율을 매기는 상황이다.

지문에서 관련 문장을 찾으면

끝부분 (사회적 할인율이)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 이익은) 저평가= (사회적 할인율과) (평가) 반비례

2. 윗글로 보아 <보기>의 ㉔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 보 기 >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㉔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지문에서의 언급 순서는 ‘할인율 -> 평가’였는데 여기서는 순서를 바꾸었을 뿐. 순서 바꾸기는 많은 오답을 부르는 매우 매력적인 신흥이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반비례 관계만 찾으면 게임 끝~!

(놀이동산을) 평가

/ 할인율 적용

-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 (놀이동산을) 부정적 평가 주민들은 /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 (놀이동산을) 부정적 평가 주민들은 /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반비례 관계
-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 (놀이동산을) 긍정적 평가 /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 (놀이동산을) 긍정적 평가 주민들은 /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하면 = (놀이동산을) 부정적 평가 /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할인율 Tip

보통 ‘할인’은 공급자인 문방구 아저씨가 해주는 거지만 ‘할인율’은 ‘나’(우리)가 대상의 가치를 깎아 보는 것. 물건에 흠이 많을수록, 미래에 별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수록 할인폭이 커지고, 이렇게 할인율이 클수록 대상의 가치는 적게 남게 된다. 그러므로 할인율과 대상의 가치는 반비례 관계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이자율은 높은 게 좋다. 그렇다면 할인율은 낮은 게 좋은 거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액면가와 금리가 정해져 있는 채권(대상)의 가치는 떨어진다. 채권은 들고 있어봤자 만기시 액면가+정해진 금리까지밖에 안 주지만 은행에 예금하면 금리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시중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의 매력(=가치)이 떨어지니 채권의) 할인율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할인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도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진 것은 싸니까, 가치는 값어치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학년도 6월)

[A]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과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본다.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을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상정(想定)하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일관된 선호를 보이며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고 본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前提)로 경제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 (반면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감성적인 존재라고 보며,) 처한 상황에 따라 선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은 효용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서 선택을 한다고 본다.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이 가정하는 인간관을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며,) 현실에 실제(實在)하는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지문이 요구하는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상식적인 논리에 기반해서 문제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백퍼.

다음 내용을 표시해 가며 읽을 때, 함께 괄호를 해서 세트로 이해하는 게 좋다. 여러 하위 개념들이 층층이 나올 때는 대상을 층위 별로 효과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기존의 경제학 : (합리적, 이기적)

행동경제학 : (제한적으로 합리적, 감성적)

보통 상식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것은 긍정적, ‘이기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조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내용 파악 실패.

지문은 기존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을 대조하고 있으므로, 각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특징은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파악해야 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최후통첩 게임’은 두 명의 참여자 A, B가 1회에 한해 돈을 분배하는 게임이다. A가 분배 액수를 제안하고 B가 이를 수용하면, A의 제안에 따라 돈이 분배된다. 하지만 B가 A의 제안을 거절하면 두 사람은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게임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실험한 결과, ㉠ 많은 A들은 상대방에게 최소 40% 이상의 몫을 제안하는 관대함을 보였다. 만약 A가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면 B가 거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전부를 차지하려고 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 많은 A들은 행동경제학의 관점 또한 B도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A의 제안을 수용해야 하지만, ㉡ 많은 B들은 20% 이상의 몫을 제안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보다 거절을 선택했다. =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행동경제학의 관점 -> 따라서 ㉠과 ㉡는 모두 행동경제학의 관점(인간을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감성적 존재로 봄)

- ① ㉠가 감성보다는 이성에 의존하여 제안을 하는 것은 행동 경제학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겠어.
- ②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 ㉡를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로 판단할 수 있겠어.
- ③ ㉡는 수용보다 거절을 선택하는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학을 옹호하는 근거가 되겠어.
- ④ 기존의 경제학에서 보면 ㉠는 합리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판단할 수 있겠어.
- ⑤ (40% 이상의 액수를 제안하는 ㉠의 행동은) (행동경제학의 입장에서) 기존 경제학의 인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겠어.

즐거 보기 문제 적용

여기서부터는 지문과 문제가 어려워서 시간을 많이 잡아 먹어요. 원래 즐겨 보기 문제가 '적용하기' 유형이라서 최고난도 문제잖아요.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수업한 후 나머지 문항들을 자습 겸 복습(자세한 해설이 필요하다면 교사용을 해설지로 활용해서 그 부분만 주세요.) 겸 과제(문제번호부터는 쉬운 것부터 점점 고난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로 내주세요

★유형1★ 핵심 문장이나 어떤 한 문단의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경우

먼저 지문과 <보기>에서 공통의 '기준'을 잡은 후, 그 이하를 '대응'시키는 전략이 가장 일반적이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년 3월 시행)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이하 문단 내용 생략)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이하 문단 내용 생략)

주식의 소유주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이하 문단 내용 생략)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금이 큰 회사이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 유지의 원칙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회사는 부실화되고 외부의 위협에도 취약해진다.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반면에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으로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식회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 정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 기록한 문서.

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 5천 원의 주식을 1백만 주 발행하였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25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들였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

- ① A 회사가 파산한다면 C 회사의 이해 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
- ②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
- ③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 ④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더라도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
- ⑤ A, B, 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 원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과 동일하겠군.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금이 큰 회사이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 유지의 원칙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 <보기>에 해당하는 조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 <보기>문제 풀이의 키 회사는 부실화되고 외부의 위협에도 취약해진다.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반면에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왜? 이 문단 첫 문장을 보자.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목적)-이 문제 실제로 이 지문에 떨어져 출제됨(이유 추리 문제)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으로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식회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 정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 기록한 문서.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 <보기>에 해당하는 조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 <보기>문제 풀이의 키

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 5천 원의 주식을 1백만 주 = 50억 발행하였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25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들였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

	A회사	B회사	C회사	
출자 자본금	50억	25억 납입 받음	15억 납입 받음	서류상 자본금 90억
회사 통장에	25억 남음	10억 남음	10억 A회사로 감	
	C로부터 10억 들어옴		5억 남음	
실제 최종 자본금	35억	10억	5억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 50억

- ① A 회사가 파산한다면 C 회사의 이해 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
- ②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
- ③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 ④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더라도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
- ⑤ A, B, 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 50억 원) 90억 원X 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 = 90억 원과 동일하겠군. 열심히 계산할 이유가 없군. 지문의 관련 문장 ★과 어긋나는 내용이니 이게 답!

★유형2★ 지문에 없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경우

다음 지문도 어느 한 문장의 주제의식을 줄글 <보기>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데, <보기>에 새롭게 나타난 '끈 밀어올리기'라는 개념이 있다. <보기>에서 새 개념이 나왔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풀어야 할까? 일단 지문 내용을 이해하면서, 표시도 하면서 풀어보자.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학년도 6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 이렇게 반대의 경우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게 좋다. 결국 앞선 내용과 동일하니까.>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2문단과 1문단 요약 /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 = 개별회사가 튼튼하다고 시스템도 튼튼한 건 아니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 (차별화 도는 건) 예방적 규제가 아니라 '개별회사'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라는 대상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아, 이게 앞 문장에서 말한 경기 순응성이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에)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결국 초과자기자본에다가 추가적으로 완충자본을 더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보 기 >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대칭적이라는 거군! ①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①(확대된 신용 공급)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문에 표시한 위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구체적으로 풀어 써 놓은 내용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 (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지문에 없던 새 개념 '끈 밀어올리기'에 주목해야겠군!

<보기>의 내용을 대응시켜서 이해해야 한다.

첫 문단 :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2문단 :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역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군!

이 문제를 내면서 출제자는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

지문에는 없지만 <보기>에 새로 나온 개념이 있다. '끈 밀어올리기'이다. 이 문제는 이 개념을 소개하고 싶은 거다.

그렇다면 다음 선택지 다섯 개 중에서 '끈 밀어올리기'를 먼저 풀어보는 전략은 어떨까? ①번과 ③번에 '끈 밀어올리기' 개념이 있으니 이것을 먼저 풀어 본다. 지문 내용과 관련하여 '끈 밀어올리기'라는 새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 출제자 의도를 고려해 볼 때, 답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며 혹 답이 나오지 않아도 시간적 손해는 없다. 오히려 ①번과 ③번을 먼저 풀어서 답이 나온다면 개이득.

앞으로 <보기>에 새로 나오는 개념에 유의하고, 선택지 구성 방향도 염두에 두고 풀자!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해설은 <보기>에 표시한 번호 부분 참조. (<보기>를 처음 읽을 때 선택지 번호를 미리 알고 번호를 붙인 게 야심 주의. 해설하기 위해 붙였을 뿐.)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X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경기 대응 완충제도는) (경기 과열기에) 도입해야 자본을 쌓을 수 있고, 경기 침체에 이 자본을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할 수 있다. 지문의 끝 문단 참조. 오답 구성 원리는 '시간 바꾸기'. '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괄호 치며 읽어야 내용 이해도 득하고, 문제 풀 때도 무기로 활용 가능!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침체기에는 정책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유형3★ 지문 전체의 주제와 연결해서 풀어야 하는 경우

지문 표시 요소 : 기준

문제 유형 : 전개 방식(지문 구조), 줄글 <보기> 문제(주제 의식의 구현)

★주제를 다루는 3번 문제는 다음 <보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지문의 주제는 '내부 공생을 하다가 세포 소기관이 되면 개체성을 잃는다'이다. 다음 줄글 <보기> 문제는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이다. 따라서 1문단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본문을 통해 그 주제의식을, 1문단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주로 끝 문단에 있음)을 캐치해 내는 능력이 세부적인 내용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내용 이해에 대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시간에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질문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 1문단 끝부분은 2문단 이하를 지배한다! 꼭 기억해 둘 것. 주제와도 직결도니까.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공생 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 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한다고 설명한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 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전자 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며 단백질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생 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진 핵세포가 되고 (원생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 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 세포막의 수송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사이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미토콘드리아의 DNA길이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에너지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DNA 길이가 짧다. --> 그러므로 미토콘드리아는 개체성을 잃고 사람의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 ~

3.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개체성의 조건을) 문단에서 제시한 후 /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 내부 공생 만약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다.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 내부 공생

- ①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 내부공생)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X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은' 하나의 동일한 개체가 되었다는 것.
문단 끝문장에서 동등한 개체의 조건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지문의 끝문단에서 밝히고 있는, 동일 개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세포 소기관'이 된 것. 그러나 <보기>의 아메바가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는 진술은 없다. 세포 소기관이 되어야만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뭐, 유산균이 모두 사라져서 나도 죽었어. 그렇다고 나랑 유산균이 같은 개체는 아니잖나?
- ②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복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 ③ 복어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복어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 ④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길이는 짧아졌겠군.
- ⑤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복어'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관계이겠군.

★유형4★ 지문의 완결성을 <보기> 문제로 채우는 경우

(1문단 생략)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1)물가 경직성 또는 (2)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1)과 (2)는 오버슈팅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제시됐는데, 이 지문이 다 끝나가도록 (1)물가경직성에 의한 오버슈팅만 나오지 (2)가 초래하는 오버슈팅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완결성'이 부족한 글로 배웠다. 그렇다면 수능 지문이 이래도 되는가? 그렇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래 줄글 <보기>문제를 보자 -->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그렇다면 장기 먼저?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 변하지 않는다. 분자인 통화량이 올랐고, 분모인 물가도 올랐으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았네. 여기까지 '장기'의 환율 조정

(그런데 단기에는) 이제 단기를 얘기하네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 보 기 >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앗 여기에서 오버슈팅의 원인 (2)를 만나네^^ 출제자님 창의력 짱어! 이렇게 지문의 완결성을 채워주세요네~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투자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환율의 오버슈팅이 일어났네~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시장금리도 떨어지는 거야. (반대로 정책금리는 올릴 가능성이 높는데, 이것은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기 안정을 꾀하는 것이 목표이고, 시중은행은 이윤추구가 목표니까 그런 거야. 이에 대해서는 '기출 경제'편에서 다시 얘기하자고. 여기서는 정책금리(=기준금리)와 시장금리(=시중금리)는 그 목적성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자.) 2nd, 3rd문단에서 '통화량 증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3rd문단에서 통화량을 언급한 뒷부분에 시장금리는 하락한다고 얘기했어.

①(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B국의 시장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어. 그렇다면 A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이상 B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A국에서는 오버슈팅의 정도가 더 커지지는 않을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두 개의 오버슈팅의 원인을 제시한 후 지문에서는 첫 번째 원인으로 인한 오버슈팅을 이야기 했고, 두 번째 원인으로 인한 오버슈팅은 <보기> 문제를 통해서 제시한 유형.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통화량 증가'에 있다! 지문에서도 항상 '통화량 증가'의 경우라는 조건으로부터 다른 지표들의 상승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문 읽을 때 '조건'을 괄호 표시하고 읽은 후,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그 조건으로부터 출발하면 된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경제 문제 배경지식 Tip

거시경제의 기준은 '통화량' 증감으로부터 시작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이 흔해지므로 통화가치가 하락 ->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교환가치도 하락하니) 환율이 오르고,(1달러에 대해서 1200원이면 바꿔주던 미국에서 1달러를 들고 200원 더 줘야 이 돈을 줄게~ 한다면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다, 고 하지.)
통화가치가 하락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니 물가도 오른다(따라서 환율과 물가는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표기되는 외국 상품의 가격은 오르게 되지. 그럼 가격이 싸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니 수입이 줄어.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 가격도 싸지게 되지.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같은 물건인데 저렴해진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는 거야. 이러한 실물경제의 수입과 수출에 대한 집계를 '경상수지'라고 해.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2학년도 대수능)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어쩌라구? 미국 적자해? 말아?**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아 그래서 트리핀 교수의 딜레마**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3문단의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 요약**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미국 월, 이러면 이제 달러를 믿고 거래해도 되는 거지?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 고정환율제**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트리핀 교수의 경고대로**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 **㉠방법 탈락**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 **자국 통화 평가 절상 하면 무역적자된다는 거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 **결국 미국 뜻대로 될 거란 전망**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 **평가 절상 될 거니까 지금 사두자!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또 가치가 오르니까 더 평가 절상, 환율은 더 하락. 난리 났네.**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약달러니까 빨리 금으로 바꾸주**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3문단으로부터

환율 하락 = 평가 절상 = 수출에 불리

5.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 재정 적자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사실 A국의 무역적자 상황을 제시해 주야 지문과의 관련성 속에서 풀 수 있음. 자국 재정 적자 문제를 왜 타국에 전가하나. 내용 이해를 위한 배경지식을 너무 필요로 하는 문제라서 문제가 있음. 이견 반박이치.

지문의 마지막 문단도 그렇고 이 문제는 해야 할 말에 비해 지문이 짧아서 출제자가 할 말을 다 못하고 끔찍대는 괴로움 그 잡채!

A국 미국이네

B국 억지로 환율 50% 하락시킴 = 50% 평가절상 = 수출에 50%만큼 불리 일본인가?

C국 억지로 환율 30% 하락시킴 = 30% 평가절상 = 수출에 30%만큼 불리

플라자합의(1985) 2년 경과 후 실제로 달러화는 30%까지 평가 절하 되었고(=환율 상승) 미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게 되었다. 반면 일본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이 됨. 역플라자합의(1995)를 통해 다시 엔화의 환율을 상승시켰으나 지금까지 일본 경제는 고전 중. 이런 배경지식은 몰라도 풀이에 지장 없음.

삼자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네.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X 그런 소리 없음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 /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 /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하락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과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B국 통화에 대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C국 통화의 환율은 = 상승 모두 하락했겠군. X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 /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③번에서 설명한 대로 B국에 대하여 C국은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에 유리 -> 경상 수지 개선

A국에 대하여 B국 환율 50% 하락, C국 환율 30% 하락하면

환율이 높은 게 수출에 유리하니까

B국보다 환율이 덜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높은 C국이 수출에 유리->경상수지 개선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 금리가 높아서 강달러니가 수출에 불리 ->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 /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단순 불일치